

# 페티시즘을 반영한 신체구속형 주얼리의 유형별 분석과 미적 특성에 대한 연구

## - 2000년대 이후를 중심으로 -

유연재·최정화\*

경북대학교 의류학과 강사  
경북대학교 의류학과 교수\*

### 요약

본 연구는 페티시즘을 반영한 신체구속형 주얼리의 유형별 분석과 미적 특성에 대한 연구이다. 연구방법은 페티시즘과 관련된 전문서적과 선행논문, 인터넷 자료 등을 고찰하였다. 연구범위는 2000년대 이후부터 현재까지 발표된 4대 패션 컬렉션과 제니퍼 쿠르피, 나옴 필머, 벤토니 베르논과 같은 페티시 주얼리 전문 아티스트 작품에서 선별한 총 100점의 사진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얼굴·구강구속형 주얼리는 체인, 기계장치로 얼굴, 구강을 은폐함으로써 성적 퍼포먼스를 연상시켰다. 환상적 의미를 가진 모티브를 적용한 마스크는 인간의 한계를 뛰어 넘는 힘과 새로운 페르소나를 형성하였다. 또한 플라스틱으로 제작된 마우스피스를 응용한 디자인은 유머러스한 면모를 드러내기도 했다. 둘째, 발·다리구속형 주얼리는 기존의 페티시 아이템인 하이힐과 가터벨트, 긴 부츠와 결합된 디자인으로 환상적 이미지와 미래의 성적 지배자의 도상을 나타내었다. 이것은 신화적인 분위기를 연출하기도 하였다. 셋째, 손·팔구속형 주얼리는 손가락의 움직임과 기능을 제한한 실험적인 디자인을 선보이며 미래형 주얼리 디자인을 표현하였다. 소재로는 플라스틱과 기계적 장치가 사용되었다. 금과 뿔을 활용하여 물신숭배를 나타내거나, 화이트 가죽과 진주를 통해 로맨틱한 섹슈얼리티를 연출하기도 하였다. 갑옷과 같은 디자인은 성적지배의 의미를 가진다. 기타 신체구속형 주얼리는 유두, 목을 구속하는 형태로 나타났으며, 에로틱한 미래 신체이미지를 표현하였다. 잠금장치와 같은 팔찌와 목걸이는 마조히즘적인 퍼포먼스를 연상시키는 동시에 유머러스한 면모를 드러내었다. 페티시즘을 반영한 신체구속형 주얼리의 미적 특성으로는 관능성, 공포성, 환상성, 미래성, 유희성이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국내 패션산업에 창의적인 디자인 개발과 주얼리 디자인을 위한 교육 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주제어 : 페티시즘, 주얼리, 신체구속, 성적 판타지

\*교신저자: 최정화, [jhchoi0@knu.ac.kr](mailto:jhchoi0@knu.ac.kr)

접수일: 2017년 10월 25일, 수정논문접수일: 2017년 11월 20일, 게재확정일: 2017년 12월 14일

## I. 서론

현대 패션에서 주얼리는 기존의 자산적 가치가 있는 장식을 넘어 재료의 다양성, 제작자와 착용자의 개성을 표현하는 시대의 예술적인 감성과 철학이 더해지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고전적인 기능과 의미의 관계, 그리고 물질적 재료의 경계조차 흐려지는 현대 사회를 닮아 의상에 부속된 하부 개념이 아닌 의미 있는 문화적 기호로의 인식적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Hwang & Choi, 2015). 특히 최근 몇 년간 하이패션 브랜드에서 선보였던 주얼리는 새로운 착용방식과 착용부위, 의복을 대신할 수 있을 정도의 크기와 독창적인 디자인으로 컬렉션의 전반적인 콘셉트와 무드를 좌우하는 결정적인 역할까지 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점은 최근 디자이너들이 선보이고 있는 주얼리 디자인이 신체를 구속함으로써 더욱 에로틱하게 인간의 페티시즘을 자극한다는 점이다. 말하자면 기존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던 신체를 구속하는 페티시 패션아이템인 마스크, 장갑, 스타킹, 체인, 지퍼 등이 창의적인 디자이너들에 의해 주얼리 디자인으로 새롭게 탄생되고 있는 셈이다. 인간의 본능인 성적욕구는 역사적으로 항상 논란과 화두가 되었지만, 사실 21세기 패션계에서 단순히 성적매력 어필을 위한 노출은 더 이상 새로운 것이 없다. 현대 소비자들의 니즈는 더욱 복잡하고 다양해졌으며, 인간의 본능을 자극하는 에로틱 코드나 속옷의 겉옷화, 노출패션 등은 이미 영화, 광고, 뮤직비디오 등 많은 매체들을 통해 익숙하고, 대중화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신체노출이 아닌 구속을, 의복이 아닌 주얼리를 활용한 페티시즘의 구현은 늘 새로운 것에 도전하고 창조하고자 하는 패션계에 새로운 시도로 볼 수 있다.

한편, 복식사에서 페티시즘과 주얼리는 예로부터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었다. 인류가 처음

생겨났을 때부터 주얼리는 장식과 치장이라는 인간의 자연적인 욕망을 충족시키고, 자연이 인간에게 실존적 위협을 의미할 때 자연으로부터 보호의 주술적 기능을 수행하였다(Lee, 2016). 17세기 이후 북유럽 개신교 상인들의 기록에 의하면 서아프리카 지역의 토착종교를 믿는 우상숭배자(idolater)들이 목에 ‘페티시’라고 불리는 가죽 주머니를 달고 다녔다고 한다(Bang, 2011). 여기서 휴대가 가능하도록 목에 달고 다니던 페티시 가죽 주머니는 그들이 가치 있다고 여기는 작은 오브젝트이면서 동시에 주술적인 장식을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일종의 주얼리 개념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주얼리와 페티시즘은 과거부터 서로 유래적인 측면에서 긴밀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으며, 현대에 와서는 노출보다 더욱 인간의 욕망과 호기심을 자극하는 신체구속형의 페티시 주얼리로 재탄생하여 감각적인 소비자들의 다양한 미적기준을 충족시키고 있다. 특히, 페티시즘이 반영된 디자인 요소는 과거 일부 기괴한 취향의 마니아층을 위한 하위문화(subculture)로서의 물신주의적인 개념만이 아닌, 개성적인 하이패션에도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유행의 과정을 거쳐 점차 대중화되고 있다(Lee & Kang, 2015). 예를 들어 목을 바짝 조이는 네크리스 ‘초커(choker)’는 과거 노예를 복종시키거나 일부 페티시스트들 사이에서 성적도구의 목적으로 이용되었지만, 현재에는 로맨틱한 패션 및 스트리트 패션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트렌디한 아이템으로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실정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패션에서 페티시즘과 신체구속형 주얼리에 관한 연구나 디자인 개발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동안 페티시즘과 관련된 선행연구로는 Lee and Yang(1998)의 ‘패션에 나타난 페티시즘 연구’와 같이 주로 언더웨어 및 코르셋(Jung, 2013; Yim, 2014), 슈즈(Lee & Kang, 2015)처럼 일반적으로 알려진 아이템을 중심으로만 진행되어 왔다. 또한

최근 주얼리와 관련된 연구는 변화하는 시대와 기술에 부합하는 새로운 재료(Choi, 2015) 및 의미(Kim, 2012; Sin & Lee, 2015), 경계 흐려짐(Hwang & Choi, 2015), 커스텀 주얼리(Lee, 2016) 등과 같은 다각적인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었으나, 인간의 욕망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진 페티시즘과 신체구속형 주얼리에 관한 연구는 미미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논문의 연구는 페티시즘과 신체구속에 대한 관계를 새롭게 논의하고 신체를 구속하는 페티시 주얼리의 유형별 표현 방법과 미적 특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주얼리에 관한 연구를 통해 그동안 의복에 비해 상대적으로 연구가 미약했었던 주얼리 디자인을 위한 교육적 자료로 쓰이는데 의의가 있다. 또한 하위문화에서 점차 트렌디하고 대중적인 문화로 자리 잡고 있는 페티시즘과 그 문화적 요소를 의상 이외의 주얼리 디자인에 적용하는 방법을 분석함으로써 국내 주얼리 산업의 창의적인 디자인 개발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연구내용으로는 첫째, 페티시즘의 기원과 개념에 대해 정립한다. 둘째, 신체구속과 페티시즘에 관한 연관성을 알아본다. 셋째, 페티시즘을 반영한 신체구속형 주얼리를 얼굴·구강구속형, 발·다리구속형, 손·팔구속형, 기타 신체구속형과 같이 유형별로 분류하여 분석한다. 넷째, 분석된 내용을 바탕으로 미적 특성을 정리한다. 논문의 분석방법으로는 페티시즘과 관련된 전문서적, 연구논문 등을 통한 이론적 고찰을 이행하고, 2000년부터 현재까지 4대 컬렉션에 발표된 액세서리 디자인을 비롯하여 제니퍼 크루피(Jennifer Crupi), 나오미 필머(Naomi Filmer), 벤토니 베르논(Vetony Vernon)과 같은 섹슈얼한 테마의 주얼리 전문 아티스트들의 개인 웹사이트 등에 수록된 주얼리 사진 중 신체구속에 해당하는 108개의 사진을 수집하였다. 그리고 그 중 패션전공인 2인에 의해서 최종 100개의 작품을 선별하여 사례분석연구를 수행하였다.

## II. 페티시즘에 대한 이론적 고찰

### 1. 페티시즘의 개념

사전적 정의에 따르면 페티시즘(fetishism)이란 이성의 몸의 일부, 옷가지, 소지품 따위에서 성적 만족을 얻는 성적도착의 의미와 종교적인 물신숭배의 개념을 갖고 있다. 페티시즘의 원어인 페티시(fetish)란 용어는 본래 숭배의 대상이 되는 자연적, 인공적인 물건을 가리키는 것으로 어원은 인위적이라는 뜻의 라틴어 ‘facticus’와 주문·부적 또는 마법을 뜻하는 포르투갈어 ‘feitiço’, 프랑스어 ‘fétiche’에서 유래된 것이다(Lee & Yang, 1998).

페티시는 15세기 중엽부터 서아프리카 연안에 서 교역활동을 하던 포르투갈 상인들에 의해 알려지기 시작했다. 그들은 아프리카 부족이 평소 숭배의 대상으로 삼고 있던 신적 자연물을 페티소(feitiço, fetisso)라고 부르며,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 갖가지 질병과 해악을 피할 수 있는 주술적인 힘을 갖게 된다고 믿는 것을 보고 페티소를 ‘주물’, ‘연물’, ‘물신’과 같은 원시적인 종교의 개념으로 보았다. 18세기 프랑스의 비교종교학자 샤를 드 브로스(Charles de Brosses)는 아프리카를 비롯한 세계 각지의 민족들에게서 볼 수 있는 이러한 원초적인 행위와 신앙을 통틀어 페티시즘이라고 명명하였다(Fetishismus, n.d.).

중세 유럽문화를 살펴보면 중세시대 사람들은 전쟁터에 나갈 때 사랑하는 사람의 물건을 몸에 지니고 다니며 이것을 페티시라고 불렀다고 한다(Song, 2015). 옷은 특히 매우 신성한 페티시로 여겨졌는데, 이는 닿을 수 없는 이성의 신체를 옷을 통해 대신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사랑하는 사람의 옷을 소유함으로써 질병과 악마의 저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낭만적이고 에로틱한 사랑을 이룰 수 있다고 믿었다(Kim, 2010).

심리학자 알프레도 비넷(Alfred Binet)은 1887년

에 페티시즘을 최초로 성적인 맥락에서 사용한 사람으로서 성적 일탈의 개념을 도입한 ‘에로틱 페티시즘(erotic fetishism)’ 이론을 제시했다. 그는 페티시즘을 병적인 결과로 의심하면서, 개인이 유년 시절에 경험하고 감각적인 자극을 받았던 특정한 물건들이 성적인 도착 증세를 일으킨다고 주장하였다. 비넬의 이론 이후 페티시즘은 19세기 말부터 정신분석학자들에 의해 성적 일탈의 병적 현상으로서 간주되었다(Kim, 2010). 독일의 성심리학자 리처드 본 크라프트 에빙(Richard von Krafft-Ebing)은 여성 신체 특정부위나 복식을 성적 매력과 결부시키는 것을 페티시즘이라고 정의하였다. 그리고 그는 마르퀴스 드 사드(Marquis de Sade)의 이름을 딴 ‘사디즘(sadism)’과 에로틱한 고전 ‘Venus in Furs’를 쓴 레오폴트 폰 자허마조흐(Leopold von Sacher-Masoch)의 이름을 따서 가학적인 행위를 통해 성적 자극을 느끼는 ‘마조히즘(masochism)’이라는 용어를 만들어냈다(Joanne, 2000/2013).

20세기를 대표하는 정신분석학자, 지그문트 프로이트(Sigmund Freud)는 그의 저서 『Three Contributions to the Theory of Sex』에서 페티시즘 환자가 성적 만족을 얻는 대상은 미개인들이 물건에서 그들의 신을 형상화한 것과 견줄 만하다면서 페티시즘을 정신의학적인 개념으로 설명하였다. 그는 페티시즘을 불러일으키는 복식을 신체 기관에 비유하기도 하였는데 이를테면, 모피는 여성의 음모를, 타이와 모자는 남자의 성기를, 구두나 거들(girdles) 혹은 베일(veil)은 여성의 성기를 상징한다고 보았다(Fetishism, n.d.).

이처럼 인간의 근본적인 불안 및 성적욕망과 밀접하게 연관된 페티시즘은 그것을 해소하고자 사물이 가지고 있는 내재적인 가치나 힘의 속성에 주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2. 페티시즘과 신체구속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탯줄에 의해 구속된 상

태로 태어난다. 임신기간 동안 탯줄은 태아의 생명줄이자 모체와 가장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최초의 통로이지만 출산 이후 절단되면서 다시는 연결될 수 없다. 이것은 다른 형태로의 연결과 구속에 대한 탐구가 시작되는 시발점이 되며, 인간은 이런 분리 불안을 평생 느끼고 산다. 비록 탯줄을 대체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적어도 최초의 신체구속을 기억하며 다른 어떤 형태로든 그것을 구현해내고 싶어 한다(Edelkoort, 2013). 따라서 인간은 신체 활동의 자유를 원하면서도, 때로는 무의식적으로 외부 물리적인 수단에 의한 신체구속과 압박감 속에서 편안함과 안도감, 자유와 쾌락을 느끼기도 한다. 또한 신체의 어떤 부분을 타이트하게 구속하는 것은 착용하는 이와 보는 이 모두에게 성적 욕망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Lee & Yang, 1998).

페티시즘은 주로 사물을 조이는 단어로 묘사된다. 미스트리스 장(Mistress Jean)은 페티시를 ‘포장’, ‘제한’, ‘제약’, 그리고 ‘고정화’와 같은 단어로 묘사하였고, 신체를 조이는 행위가 페티시스트들의 퍼포먼스에 주요하게 작용한다고 보았다. 또한 존 머니(John Money)는 페티시즘을 촉각(haptic)과 후각(olfactory)적 요소로 분류하고 이러한 요소들이 시각적으로 형상화되어 판타지를 자각할 수 있다고 하였다. 여기서 촉각은 신체 압박의 느낌, 사물간의 비비는 마찰 또는 접촉(touching)과 관련되며, 주로 압축된 구성을 통해서 바디를 타이트하게 압박하는 보디수트, 허벅지까지 오는 하이부츠, 부착된 끈, 스타킹, 글러브 등과 같은 복장들이 신체를 구속하면서 섹슈얼한 느낌과 오르가즘에 도달할 수 있게 한다고 하였다. 실제로 1800년대 초에 페티시스트 남성들은 중간 부분이 끈으로 장식된 가죽이나 고무로 된 관모양의 ‘페니스 코르셋(penis corset)’을 비밀스럽게 착용하기도 하였다. 또한 데이비드 쿤즐(David Kunzle)은 꼭 끼는 코르셋을 착용했던 19세기의 타이트 레이서(tight-lacer)들은 성적으로 개방되었던 여성 페티시스트들로

코르셋의 압박에서 고통이 아닌 오히려 육체적 희열을 발견하였다고 언급한 바 있다(Lunning, 2013)

인간의 성적욕망과 관련된 페티시즘은 역사적으로 각 시대별 미적기준과 긴밀한 연관성을 가지며 신체 특정부위를 구속하는 복식의 형태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것은 극단적인 신체구속으로 인한 기형적인 신체변형을 초래하기도 했다. 예를 들어 중국과 남아프리카의 소수민족들 사이에서는 긴 목을 가진 여성을 미인으로 간주하여 목에 착용하는 링의 개수를 점차적으로 늘림으로써 목의 길이를 연장시키기도 한다(Figure 1). 앞서 언급한 코르셋은 잘록한 허리를 이상적인 신체로 보았던 빅토리아 시대에 정숙한 여성상을 의미하는 동시에 에로틱한 신체를 향한 욕망의 도구로 볼 수 있다. 여성의 사회진출이 허락되지 않던 시절, 갈비뼈가 부서질 정도의 고통 속에서도 허리 사이즈를 줄이는 것은 여성 집단에 대한 사회제도의 구속 및 억압과 남성에게 선택받기 위한 여성의 성적인 복종을 상징한다. 비슷한 예로 고대 중국의 전족은 천 조각을 발에 둘러매어 발을 기형적으로 변형시킴에도 불구하고, 전족을 하지 않은 여성은 오히려 불구자 취급을 당하며 혼인을 할 수 없었다고 할 정도로 중요한 관습이었다고 한다. 현재까지도 여성의 노출된 발과 발목은 남성들의 페티시를 자극

한다. 그러나 오늘날 발을 구속하는 하이힐은 여전히 여성의 몸을 늘리고, 움직임을 저지하여 에로틱한 판타지를 생성하지만 여성에 대한 사회적 억압이나 구속보다는 자발적인 성적 무기로서의 파워를 더욱 지니고 있다(Edelkoort, 2013).

과거 페티시즘을 위한 구속이 신체를 기형적으로 변형시킬 정도로 극단적이었다면, 현재에는 그 구속의 강도가 훨씬 약해지고, 페티시 소재와 구속적인 이미지에서 느껴지는 에로틱한 연상 작용과 시각적인 긴장감에 더욱 주목하는 경향이 있다. 페티시스트들 사이에서 사물에 관한 집착은 크게 2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는 하이힐과 같은 특정 모양을 중요시하는 형태 페티시(form fetish), 두 번째는 실크나 가죽과 같이 피부에 닿는 촉감과 소재를 중요시하는 미디어 페티시(media fetish)가 있다. 미디어 페티시에서 피부는 가장 중요한 성감대로, 보호적인 외피로 개념화되는 신체 경계의 표시로 인식된다. 페티시스트들이 피부를 압박하고 광택 있는 소재를 선호하는 것은 몸의 침투성(penetrability)을 고양시키고, 몸의 외관과 경계를 극적으로 표현함으로써 시각적으로 성적인 측면에 주목할 수 있기 때문이다(Yim, 2014). 이러한 주목성 때문에 풍부한 상상력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SF영화에서는 PVC, 가죽, 라텍스, 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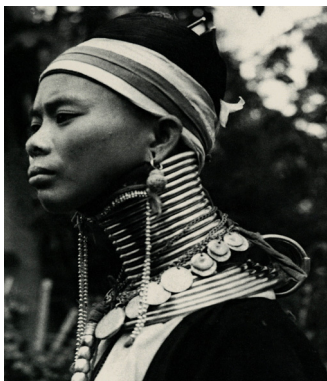


Figure 1. 중국 소수민족 여성의 목장식.  
From Stohler and Pantellini. (2004). p. 18.



Figure 2. 블랙가죽의 캣수트.  
From Catwoman. (n.d.).  
<http://movie.naver.com>



Figure 3. 에이바의 코르셋 신체.  
From Peterson, (2015).  
<http://geekleagueofamerica.com>



Figure 4. 퓨리오사.  
From love-squad, (n.d.).  
<https://shproton.deviantart.com>

무 등과 같은 페티시 소재를 활용한 의상을 많이 선보여 왔다. 이것은 캐릭터의 성적 매력을 창조하는 것뿐만 아니라 주인공에게 뚜렷한 역할과 개성을 부여하기도 한다. 공격적이고 파워풀한 고양이 이미지로 성적 매력을 강조한 2004년도 영화 『Cat Women』에서 <Figure 2>와 같이 피부에 초밀착 되는 블랙가죽의 캣수트는 채찍, 글러브, 하이힐과 같은 도구들과 함께 전형적인 여성 지배자의 도상을 함축하고 있다(Choi, 2011). 특히, 상체를 구속하는 벨트와 결합된 형태의 가죽브라와 날카로운 발톱이 달려있는 장갑과 채찍은 가학적인 성행위를 통해 성적쾌락을 얻는 사디즘을 연상시키며 성적긴장감을 더욱 고조시킨다.

한편, 21세기의 발달된 생명공학 기술은 인공진화된 신체로서의 사이보그 및 포스트휴먼의 등장을 야기 시켰다. 현재까지 로봇의 대중화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성형수술을 비롯한 임플란트, 인공관절 등을 활용한 수술은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들이 되었고, 인간의 신체기관을 쉽고 빠르게 모방할 수 있는 3D 프린터기의 개발은 인간의 신체적 한계를 극복하고 욕망을 실현시키는 영화 속 포스트휴먼의 모습이 더 이상 먼 미래의 일이 아님을 예고한다.

인간의 신체와 전통적인 페티시즘 도구에 첨단 테크놀로지를 결합한 SF영화 속 포스트휴먼의 모습

은 에로틱한 신인류의 모습을 가늠해 볼 수 있게 한다. 예를 들어, 2015년에 개봉된 인간보다 매혹적인 인공지능로봇을 다룬 영화, 『Ex Machina』에서 주인공 에이바의 신체는 인간과 로봇의 경계를 넘은 완벽한 바디수트로 감싸져 있다. 여성의 실루엣을 그대로 드러낸 바디수트는 금속 코르셋을 피부에 이식한 것 같은 제2의 피부로서의 구속 형태를 띠고 있다(Figure 3). 그리고 영화, 『MadMax』의 퓨리오사는 전투에 최적화되도록 몸을 구속하는 가죽벨트 장치와 절단된 팔을 대신한 인공부착물로 강력한 전사의 면모를 드러낸다. 짧은 헤어컷과 그을린 피부, 근육질 몸매는 그녀의 성별을 모호하게 보이게 하는데 이와 같은 연출은 남녀의 성별구분이 무의미하고, 오직 성적으로 지배하는 자와 지배당하는 자의 관계만이 성립되는 페티시즘 행위에서 성적 지배자의 도상이기도 하다(Figure 4).

지금껏 살펴본 바와 같이 페티시즘과 신체구속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본능인 성적욕구와 관련하여 서로 필수불가결한 관계라고 할 수 있다. 신체를 구속하는 행위는 개인의 성적만족감을 얻기 위한 것부터 억압, 복종, 권력과 같은 복합적인 요소들이 작용하는 이상적인 신체기준에도 영향을 끼치며, 극단적인 신체변형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 III. 페티시즘을 반영한 신체구속형 주얼리의 유형별 분석과 미적 특성

2000년대 이후부터 현재까지 세계 4대 컬렉션에 등장한 액세서리 디자인과 주얼리 아티스트들의 작품을 수집하여 총 100개의 신체구속형 주얼리 작품을 선별하였다. 신체구속 부위별로 분류한 결과 얼굴·구강구속형, 발·다리구속형, 손·팔구속형, 기타 신체구속형의 유형으로 나타났다.

#### 1. 유형별 분석

##### 1) 얼굴·구강구속형

얼굴은 인종과 성별, 나이, 캐릭터, 감정상태 등과 같이 복합적인 요소들을 가장 집약적으로 나타냄으로써 개인의 아이덴티티를 드러내고, 특히 표정을 짓는 기능을 통해 타자와 상호작용 할 수 있는 핵심적인 신체기관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전통적인 젠더관념과 사회적 계급, 인종, 성별 등의 구분이 무의미한 페티시즘 문화에서는 개인의 아이덴티티가 반영되는 얼굴을 구속하고 은폐함으로써 새로운 역할 플레이(role play)의 기능을 보여준다. 체인과 장식적 주얼리를 활용하여 착용자의 표정과 아이덴티티를 은폐하고 있는 <Figure 5>는

마뉴엘 디아즈(Manuel Diaz)가 제작한 주얼리 작품이다. 무게감을 더한 커다란 페이스트 주얼리와 세밀하게 연결된 체인장식들은 얼굴을 비롯한 두 상전체를 은폐하면서 성별 구분이 모호한 환상적 이미지와 신비스러움을 유발한다. 반면 디자이너 카타르자냐 코니에카(Katarzyna Konieczka)는 2013년 S/S시즌 컬렉션에서 기계적 장치를 활용한 얼굴구속형 주얼리를 통해 얼굴의 움직임을 제한하고, 특히 인간의 생존과 커뮤니케이션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구강기관을 구속하면서 성적으로 지배당하는 자의 억압적 이미지를 표현하였다(Figure 6). 무질서하게 박혀있는 듯한 철제소재의 주얼리는 의복과 함께 사이보그화된 미래형 신체이미지를 나타내고, 암울한 디스토피아적인 미래를 암시하면서 공포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한다.

얼굴을 가리고 구속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으로 마스크의 활용을 들 수 있다. 보호, 은폐, 변신, 비존재, 초자연적인 힘(Cooper, 1978/1994) 상징하는 마스크는 고대부터 주술적인 의식을 위해 사용되었다는 점에서 물성승배로서의 페티시즘과 긴밀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얼굴을 가린다는 점에서 마스크는 개인의 캐릭터 즉, 페르소나를 제거하거나 새로운 페르소나를 생성하는 유용한 기호적 기능을 수행한다(Choi, 2015). 이러한 이유로 섹슈얼한 상상



Figure 5. 페이스트 주얼리 마스크.  
From Dark Beauty. (2014).  
<http://www.darkbeautymag.com>



Figure 6. 기계장치 주얼리.  
From Работы Katarzyna Konieczka [Works of Katarzyna Konieczka]. (2011).  
<http://fashion-shower.livejournal.com>



Figure 7. 별모티브 마스크.  
From whore-for-couture: empirewaistlines: Francesco Scognamiglio HC2014 Haute Couture blog. (n.d.).  
<https://www.pinterest.co.kr>





Figure 8. 『Chocolate Mask』.

From Helps. (2010).

<http://wendyhelpsmadesignermaker.blogspot.kr>



Figure 9. 마우스피스 주얼리.

From Hood by Air SS16. (n.d.).

<http://www.dazeddigital.com>

력을 중요시하는 페티시즘 문화에서 마스크는 성적 지배자와 노예, 슈퍼히어로와 범죄자 등과 같은 힘의 권력관계를 규정짓고, 개인의 아이덴티티와 캐릭터 심지어 종족까지 바꾸는 자유로운 역할 플레이를 가능하게 한다(Cooper, 1978/1994). 금속으로 제작된 별 모티브를 반복적으로 배치하여 얼굴을 구속하는 형태의 마스크형 주얼리는 프란체스코 스코나 밀리오(Francesco Scognamiglio)의 2010년 S/S 시즌 컬렉션 작품이다. 빛, 희망, 영원, 천사, 신의 존재(Cooper, 1978/1994) 등과 같은 환상적 의미를 내포한 별 모티브를 부각시키고, 얼굴을 가림으로써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초월적 존재로서의 새로운 페르소나를 형성하고자 하였다.

한편, 얼굴에 분포하고 있는 여러 기관 중 구강기관은 성적 페티시즘과 가장 긴밀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부위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인간은 태어났을 때부터 어머니나 우유병의 젖꼭지를 통해 젖을 먹으면서 무언가를 빠는 것과 생존, 그리고 만족감의 관계를 알게 되는데 이것은 구강을 활용한 최초의 에로틱한 행위로 평생 동안 계속해서 기억되고 맛과 촉감에 관한 욕구를 규정짓기 때문이다(Edelkoort, 2013). 침이 생성되는 축축한 구강 속은 흔히 여성의 질로 비유되는 에로틱한 공간으로 인식된다. 구강성교는 구강을 활용하여 특정 신체기관을 빨거나 깨무는 행위로 그 자체로서 성적 만족감을 느낄 수 있고,

상대편도 피부에 닿는 그러한 촉각적 느낌을 통해 성적 쾌락을 얻는다. 벌어진 구강형태를 강조하여 여성의 질과 구강성교를 연상시키는 <Figure 8>은 주얼리 아티스트 필머가 2001년도에 발표한 『Chocolate Mask』라는 제목의 주얼리 작품이다. 인간의 욕망을 상징하는 금으로 입술형태를 따라 구강 속까지 구속하였고, 달콤하고 로맨틱한 사랑을 암시하는 초콜릿을 활용하여 턱에서 목까지 밀착되는 디자인은 에로틱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치아교정을 위해 사용되는 마우스피스를 디자인적으로 응용한 <Figure 9>는 후드 바이 에어(Hood by Air)의 2016년 S/S 시즌 컬렉션 작품이다. 입술의 양 끝에 끼우는 방식의 주얼리는 구강의 다물어짐과 언어기능, 음식물을 씹는 저작(咀嚼)기능을 제한하여 억압적 페티시를 표현한다. 그러나 핑크와 블루컬러의 플라스틱 소재로 제작된 잇몸과 치아의 형태를 모방한 디자인은 유머러스한 키치적 요소를 발견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얼굴과 구강을 구속하는 페티시 주얼리는 인간의 생존본능과 성적욕구, 커뮤니케이션 기능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으며 성적 퍼포먼스에 있어 에로틱한 역할 플레이와 구강성교 등을 연상시키는 신체구속형 주얼리 디자인으로 나타났다.



## 2) 발·다리구속형

인간의 신체 중 발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가장 일반적인 성적 대상물이다. 여성의 작은 발은 연약함과 여성스러움을 나타내고, 남성의 성기 대체물로 연상되기 때문에 슈즈와 함께 성적 판타지를 유발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한 다리는 성기로 통하는 가장 직접적인 연결부위이며, 허벅지 부분의 살은 부드럽고 예민하기 때문에 시각적으로나 촉각적으로도 성적흥분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과거부터 발과 다리는 드러냄과 감춤, 구속과 긴밀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

발찌형 주얼리가 하이힐과 통합되어 표현된 <Figure 10>은 2014년 S/S시즌 크리스찬 디올(Christian Dior)의 쿠뛰르 작품이다. 무릎 밑으로 조이는 듯한 체인형 발찌는 시선을 위로 향하게 하여 성적 판타지를 유발하는 긴 부츠를 연상시킨다. 페티시즘 문화에서 코르셋과 함께 가장 인기 있는 아이템으로 손꼽히는 긴 부츠는 발을 구속하는 하이힐 형태와 가죽, 라텍스, PVC와 같이 피부를 압박하는 소재가 결합되어 형태 페티시와 미디어 페티시 요소가 동시에 충족되는 대표적인 페티시 아이템으로 볼 수 있다. 긴 부츠를 연상시키는 또 다른 작품 <Figure 11>은 2013년 S/S시즌 파코 라반(Paco Rabanne)의 맨살을 드러낸 주얼리이자 샌들이 통합된 디자인이다. 다리를 조이는 투명 끈으로 샌들

과 연결된 주얼리는 억압적 페티시즘을 나타내는 성적 아이템으로 작용하며(Hwang & Choi, 2015), 반복적으로 연결된 주얼리 장식과 글레이제이터 샌들은 신화적인 분위기를 연출한다. 한편, 여성들은 하이힐을 신을 때 스스로 관능적이라 생각하고 우월감과 공격성을 동시에 갖게 되는 경향이 있다. 즉 여성들에게 하이힐은 사랑과 힘의 상징이며, 공격과 지배를 나타낸다(Lee & Yang, 1994). 이를 토대로 주얼리 아티스트 베르논은 신체의 움직임을 저지하고, 하이힐을 에로틱하게 만드는 궁극적인 요소인 뒷부분의 굽을 금속 주얼리로 제작하여 주얼리와 하이힐의 아이템으로서의 정체성 구분이 모호한 디자인을 선보인 바 있다(Figure 12). 발뒤꿈치를 구속하고 있는 금속 굽은 억압과 고통을 수반하는 마조히즘적인 섹슈얼리티를 표현하고, 인공 보철을 발에 삽입한 듯한 미래의 에로틱한 신체 이미지를 나타낸다. 전사적 이미지를 강조하여 성적 지배자의 도상을 연출한 <Figure 13>은 2010년 S/S시즌 장 폴 고티에(Jean Paul Gaultier)의 작품이다. 발목부터 허벅지까지 겹겹이 착용된 원형 주얼리는 거리감에 따른 착시효과를 통해 가터벨트나 긴 부츠를 연상시키기도 한다.

이와 같이 발과 다리를 구속하는 페티시즘 주얼리는 하이힐과 롱부츠, 가터벨트와 같은 전통적인 페티시 아이템을 연상시키거나 통합된 디자인



Figure 10. 체인형 발찌 주얼리.  
From Jasc. (2014).  
<http://dustyburrito.blogspot.kr>



Figure 11. 샌들 연결형 주얼리.  
From ELLE.COM. (2012).  
<http://www.elle.com>



Figure 12. 하이힐 주얼리.  
From Betty Vernon. (n.d).  
<http://www.virtualshoemuseum.com>



Figure 13. 가터벨트형 주얼리.  
From body armor. (2010).  
<https://imunlisted.wordpress.com>

의 형태로 나타났으며, 신체적 페티시 대상인 발과 다리의 에로틱한 면을 강조하면서 장식적인 역할과 함께 미래형 주얼리의 형태를 짐작해 볼 수 있다.

### 3) 손·팔구속형

손과 팔은 사물을 집거나 만지는 등 인간의 의지에 따라 가장 많은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대표적인 신체기관이다. 그 자체로서 신체적인 페티시 대상으로 보기는 어려우나, 손가락 끝에는 많은 신경세포가 몰려있어서 촉각적인 감각기능을 수행하고 때로는 성감대로 작용하기도 한다. 그리고 페티시스트들 사이에서 성적 지배자가 지배당하는 자의 손과 팔을 끈으로 묶고, 구속하는 것은 가장 일반적인 성행위로 알려져 있으며, 오늘날 가늘고 긴 팔은 여성의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신체기관으로 인식된다.

<Figure 14>는 크루피가 2012년에 선보인 팔찌와 반지가 선으로 연결된 복합적인 미래형 주얼리 작품이다. 금속으로 제작된 기계적인 장치로 인해 손가락의 자유로운 움직임이 제한되어 억압적 페티시를 나타내며 손가락 관절 마디마다 연결된 보철물은 사이보그적인 신체이미지를 표현하고 있다. 반구 형태의 플라스틱 주얼리로 제작된 <Figure

15>는 2015년에 발표한 나타 쿤프라스ерт(Natha Khunprasert)의 작품으로 뚫려있는 구멍에 다섯 손가락을 집어넣음으로써 전체적인 손의 움직임과 포즈가 제한되는 실험적인 디자인이다. 작품 <Figure 14>와 <Figure 15>는 기존에 신체구속형 페티시즘 주얼리에서 볼 수 없었던 독특한 구속 형태와 금속, 플라스틱과 같은 매끄럽고 광택 있는 재료를 활용한 미래적인 디자인으로 보는 이에게 흥미를 유발하고, 놀이로서의 개념이 적용된 유희성을 발견할 수 있다. <Figure 16>은 로시오 쿠엔카(Rocio Cuenca)가 선보인 링주얼리 디자인으로 헤어장식 밑으로 체인과 연결된 금속의 동물 뿔이 특징적이다. 페티시즘 문화에서 동물의 뿔은 남근을 상징하는 형태적 페티시 대상물로 작용하고, 금은 부와 권력을 상징하는데 <Figure 16>은 이와 같은 상징적 요소를 통해 샤머니즘적인 면과 신화적인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다.

한편, 장갑은 성적 퍼포먼스와 생식기의 형태를 떠오르게 하는 섹슈얼한 심볼이다. 장갑의 손가락 부분은 남근의 형태로 튀어나와 있으며 타이트한 장갑을 착용하는 것은 억압의 쾌락을 제공하고, 여성들의 좁은 질 속으로의 삽입을 연상시킨다(Lunning, 2013). 흰색 가죽장갑을 해제해서 손가락 부분을 링주얼리와 제조합한 디자인 <Figure 17>은 2013 F/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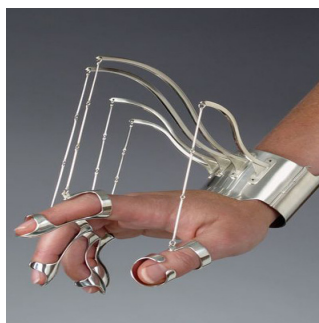


Figure 14. 손가락 움직임을 제한하는 주얼리.  
From Lynch. (2013).  
<https://laughingsquid.com>



Figure 15. 반구 형태의 주얼리.  
From artnau. (2015).  
<http://www.artnau.com>



Figure 16. 금과 뿔을 활용한 주얼리.  
From Gold/white/translucence...I love this aesthetic. Sampedro accessories by Rocio Cuenca/editorial/ #MIZstyle. (n.d.).  
<https://www.pinterest.co.kr>



Figure 17. 장갑형 링주얼리.  
From Veron. (2013).  
<http://veronicalau.blogspot.kr>



Figure 18. 팔 감옷형 주얼리.  
From Hu Sheguang Haute Couture 2014. (n.d.).  
<https://www.pinterest.co.kr>

시즌에 발표된 알렉산더 맥퀸(Alexander McQueen)의 작품이다. 4개의 링이 서로 연결되어 있어 손가락 사이의 마디가 벌어지기 어려운 구조는 본래 구속의 의미를 지닌 장갑과 함께 억압적 페티시즘을 더욱 강조한다. 또한 가죽은 특유의 냄새와 광택, 촉감을 지닌 대표적인 페티시 소재로 알려져 있는데, <Figure 17>은 순수하고 숭고한 이미지를 지닌 화이트 컬러의 가죽과 여성스럽고 고귀한 보석으로 알려진 진주알을 함께 매치하여 에로틱하면서도 로맨틱한 이미지를 표현하였다. 반면, 날카로운 가시장식으로 고통과 통증이 연상되는 <Figure 18>은 2014년 S/S시즌에 발표된 후시광(HuSheguang)의 팔 구속형 주얼리 작품이다. 전쟁터에서 사용되는 팔 보호용 갑옷과 유사한 형태와 공격적인 기능이 가능해 보이는 가시장식을 통해 강력한 성적지배자의 도상을 표현하면서 공포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다.

이처럼 손과 팔을 구속하는 페티시 주얼리는 반지나 팔찌와 같은 일반적인 패션 주얼리에 페티시즘을 연상케 하는 재료나 대상물을 적용한 복합적인 디자인으로 나타났다. 또한 신체기관 중 의식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정교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손가락의 움직임과 기능을 제한함으로써 억압적 페티시를 강조하였다.

#### 4) 기타 신체구속형

인간의 신체에는 수많은 성감대가 존재한다. 그 중 부드러운 지방층으로 이루어진 유방은 여성의 가장 대표적인 성감대이자 성적매력을 상징하는 기관으로 인식된다. 이것은 유아시기부터 시작된 것으로 태어나서 젖을 빠는 과정은 생존의 기능이자 동시에 젖을 빠는 것 자체가 쾌락이 된다. 이때 유방은 욕구를 충족시키는 대상이 되기 때문에 ‘욕망의 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Lee & Yang, 1998). 그런데 유방의 중심에 위치한 유두는 젖이 나오는 통로이자 유두주변에 분포하고 있는 예민한 돌기부분을 통해서 강한 성적자극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유방이 성감대로서의 기능을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주얼리 아티스트 베르논은 2005년도에 여성의 유두와 주변부위를 부착에 의해 구속하는 주얼리를 선보인 바 있다(Figure 19). 일반적으로 유두 부위는 뾰족하고 광택이 날수록, 클수록, 노출이 심하거나 젖꼭지를 노출할수록, 장식이 많을수록 더욱 페티시하다(Lee & Yang, 1998). 이를 바탕으로 광택이 나는 매끄러운 금속소재로 제작된 이 주얼리 작품은 유두의 둥근 형태적 특징을 잘 나타내는 동시에 젖꼭지부분을 강조하는 피어싱 장식으로 미래적인 신체 이미지를 더욱 섹슈얼하게 표현하였다. 한편, 목을



Figure 19. 유두 부착형 주얼리.  
From betony vernon jewelry. (n.d.).  
<https://www.pinterest.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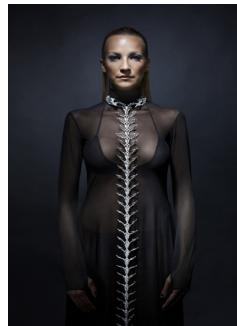


Figure 20. 목 구속형 주얼리.  
From Hintsanem. (2004).  
<https://www.eerohintsanem.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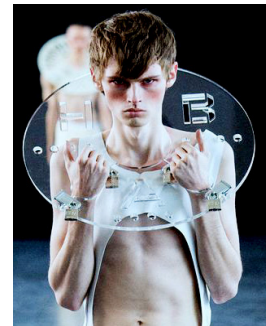


Figure 21. 손, 팔 구속형 주얼리.  
From Michault. (2014).  
<http://www.nowfashion.com>

구속하는 장치는 지배당하고 있는 상태나 계급의 의미를 내포한다.

고대부터 동서양을 막론하고 노예나 전쟁포로, 범죄자들에게는 주로 목을 압박하고 구속하는 장치를 착용시킴으로써 도주를 방지하고 심리적으로나 육체적으로도 지배자의 통제를 따르게 하였다. 다양한 역할플레이를 선호하는 페티시즘 문화에서 목을 구속하는 장치는 성적으로 지배당하는 자의 역할과 복종의 의미를 에로틱하게 나타내는 방법으로 활용되는데 <Figure 20>에서 그러한 사례를 찾을 수 있다. 주얼리 아티스트 에로 힌트사넴(Ero Hintsanem)은 동물의 유연한 척추형태를 모방한 금속재질의 네크리스를 통해 원시적이면서도 섹슈얼한 페티시 주얼리를 디자인하였다. 착용자의 목을 바짝 조이고, 성적 지배자에 의해 통제될 수 있도록 끈처럼 목 밑으로 길게 늘어뜨려진 네크리스는 사도마조히즘적인 성적 퍼포먼스를 연상시키며, 성적으로 지배당하고 싶어 하는 인간내면의 욕망을 반영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유사한 예로 지배와 복종의 의미가 강하게 표출된 <Figure 21>은 2015년 S/S시즌에 발표된 후드 바이 에어의 컬렉션 작품이다. 투명한 플라스틱 재질로 제작된 이 작품은 미래적인 느낌과 함께 목과 손목을 동시에 구속하는 억압적 페티시를 나타낸다. 그러나 자물쇠를 활용한 잠금장치는 보는 이의 흥미와 웃

음을 유발하는 유머러스한 코드를 포함하고 있다.

## 2. 미적 특성

페티시즘을 반영한 신체구속형 주얼리를 유형별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관능성, 환상성, 공포성, 미래성, 유희성과 같은 5가지의 미적 특성이 도출되었다. 첫째, 관능성은 모든 유형의 신체구속형 주얼리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특성이다. 페티시즘 문화를 상징하는 패션아이템인 하이힐과 긴 부츠, 가터벨트, 타이트한 장갑과 가죽 소재 등을 접목한 주얼리 디자인 등은 억압적이고 에로틱한 이미지를 표현하며 성적욕망을 표출하였다. 또한 주목할 점은 <Figure 8>과 같이 인간의 욕망을 상징하는 초콜렛과 금으로 벌어진 구강을 강조하는 주얼리, <Figure 19>처럼 유두부위에 부착하는 주얼리 등을 통해 여성의 성감대, 성적 행위를 연상시키며 일반적인 주얼리 디자인에서 찾아볼 수 없었던 새로운 착용부위를 선보였다는 점이다.

둘째, 환상성은 주로 물성숭배로서의 페티시 주얼리 디자인으로 나타났다. <Figure 7>과 같이 빛, 희망, 영원, 천사, 신의 존재 등을 상징하는 별 모티브가 반복된 마스크 형태의 주얼리는 정체성을 드러내는 얼굴부위를 은폐함으로써 새로운 페르소나를 형성할 수 있었다. 남근을 상징하는 동물의 뿔, 부와 명예

를 상징하는 금으로 만든 링주얼리 <Figure 16> 역시 사머니즘을 떠오르게 한다. <Figure 11>과 같은 다리를 조이는 글레이에이터 슈즈의 주얼리 디자인은 신화적인 이미지가 연출되었고 순수, 숭고, 고귀함을 상징하는 화이트 컬러 가죽과 진주알로 이루어진 링주얼리 <Figure 17>은 로맨틱한 환상성이 나타났다. 이처럼 환상성이 표현된 페티시 주얼리 디자인은 모티브의 상징적 요소와 의미에 주목하는 특징이 있다.

셋째, 공포성이 표현된 페티시 주얼리 디자인은 신체구속과 억압의 이미지를 매우 강조하였다. 이는 곧, 시각적으로도 축박적인 압박감과 고통과 통증을 연상시킨다는 것이다. 기계적 장치의 얼굴 구속형 주얼리 <Figure 6>은 암울하면서도 공포스러운 이미지를 연출하였고, 날카로운 가시장식이 박힌 갑옷과 유사한 주얼리 디자인 <Figure 18>과 하이힐 형태의 주얼리 <Figure 12>는 공격적인 성적지배자의 도상을 나타내었다. 목을 바짝 조이는 주얼리 <Figure 20>은 성적 복종의 의미와 함께 고통을 통해 쾌락을 느끼는 마조히즘적인 면모가 드러났다.

러났다.

넷째, 미래성은 사이보그적인 이미지를 연출하거나 실험적인 형태와 소재로 제작된 페티시 주얼리 디자인에서 찾아볼 수 있었다. 신체에 인공보철물을 삽입한 듯한 하이힐 굽 <Figure 12>, 광택나는 유두모양의 주얼리 <Figure 19>는 신체와 주얼리와의 경계가 허물어진 미래의 에로틱한 신체 이미지를 선보였다. 또한 발목부터 허벅지까지 겹겹이 착용된 금속 주얼리 <Figure 13>은 긴 부츠와 가터벨트를 연상시키고, 사이버틱한 여전사의 모습을 표현하였다. 기계장치로 손가락 관절마디의 움직임을 제한한 주얼리 <Figure 14>와 투명한 플라스틱으로 제작된 반구형태의 주얼리 <Figure 15>는 창의적인 미래형 주얼리 디자인을 가늠해볼 수 있게 했다.

다섯째, 유희성은 신체를 구속하는 주얼리 디자인에 키치적인 요소가 적용되어 표현되었다. 구강을 강제로 여는 마우스피스형 주얼리 <Figure 9>는 핑크와 블루컬러의 플라스틱 소재로 잇몸과 치

Table 1. 페티시즘을 반영한 신체구속형 주얼리의 유형별 분석과 미적 특성.

유형	분석	미적 특성
얼굴·구강구속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얼리, 체인장식, 기계적 장치로 얼굴, 두상전체를 은폐·구속, 에로틱한 성적 퍼포먼스 연상</li> <li>· 환상적 모티브의 마스크형 주얼리, 새로운 페르소나 형성</li> <li>· 욕망을 상징하는 초콜렛, 금으로 제작된 마스크형 주얼리, 구강형태 강조, 여성의 질, 구강성교 연상, 구강 기능제한</li> <li>· 플라스틱 소재의 마우스피스형 주얼리, 유희성 강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능성</li> <li>▶ 공포성</li> <li>▶ 환상성</li> <li>▶ 미래성</li> <li>▶ 유희성</li> </ul>
발·다리구속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발찌형 주얼리와 하이힐, 투명끈 주얼리와 샌들을 결합, 다리를 조이는 긴 부츠형상화</li> <li>· 하이힐 굽을 형상화한 금속 주얼리, 마조히즘적인 섹슈얼리티, 에로틱한 미래형 신체이미지 표현</li> <li>· 발목부터 허벅지까지 이르는 금속형 주얼리, 긴부츠와 가터벨트 연상, 전사적 이미지 표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능성</li> <li>▶ 환상성</li> <li>▶ 미래성</li> </ul>
손·팔구속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계적 장치와 같은 주얼리, 손가락 관절마디 움직임, 기능제한, 금속, 플라스틱 소재로 사이보그적인 신체이미지와 실험적 디자인</li> <li>· 남근을 상징하는 동물의 뿔, 금속 활용한 주얼리, 물신숭배표현</li> <li>· 타이트한 흰색 가죽 장갑, 진주, 링주얼리, 로맨틱한 이미지</li> <li>· 가시장식을 통해 공포감과 공격적인 성적 지배자를 표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희성</li> <li>▶ 미래성</li> <li>▶ 관능성</li> <li>▶ 환상성</li> <li>▶ 공포성</li> </ul>
기타 신체구속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성 유두모양의 부착형 금속 주얼리, 피어싱 장식</li> <li>· 잠금장치와 같은 목걸이, 손목·목을 구속한 주얼리, 성적 복종의 의미 표현, 마조히즘적인 퍼포먼스 연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능성</li> <li>▶ 미래성</li> <li>▶ 공포성</li> <li>▶ 미래성</li> </ul>



아를 형성하여 유머러스한 면을 강조하였다. 앞서 <Figure 14>와 같이 손가락 움직임을 제한한 주얼리와 플라스틱 소재로 만들어진 반구형태의 주얼리 <Figure 15>, 자물쇠가 달려있고 목과 손목을 동시에 구속하는 주얼리 <Figure 21> 등은 실험적인 디자인이면서 동시에 놀이 개념이 표현되어 보는 이의 흥미와 웃음을 유발할 수 있다.

<Table 1>은 페티시즘을 반영한 신체구속형 주얼리의 유형별 분석내용과 미적 특성을 정리한 것이다.

#### IV. 결 론

원시적인 종교로부터 유래된 페티시즘은 19세기 이후 정신분석학에서 성적도착의 의미로 사용되어 왔다. 페티시즘은 주로 신체를 조이고 구속하는 패션의 형태로 나타났으며, 이것은 개인의 성적 만족감뿐만 아니라 시대가 요구하는 이상적인 신체기준과 사회적 권력에도 긴밀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페티시즘과 신체구속 간의 관계를 알아보고, 신체구속형 페티시 주얼리의 유형별 분석과 미적 특성에 대해 연구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얼굴·구강구속형 주얼리는 개인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타자와의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얼굴기관을 페이스트 주얼리, 체인, 철제소재 등을 이용하여 완전히 은폐함으로써 신비롭고, 공포스러운 이미지를 연출하였다. 또한 고대부터 은폐와 주술적 용도로 활용되었던 마스크에 환상적 의미를 내포한, 별과 같은 모티브를 접목시켜 물성숭배로서의 페티시즘을 나타내고,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새로운 페르소나를 형성하고자 하였다. 구강기관의 구속형 주얼리는 금, 초콜렛과 같이 에로틱한 사랑과 욕망을 상징하는 소재로 벌어진 구강형태를 강조하여 여성의 질, 구강성교 등을

연상시키고, 성적 판타지를 자극하였다. 또한 마우스피스를 응용한 디자인은 저작 기능을 제한한 억압적 페티시와 유머러스한 이미지를 동시에 표현하기도 하였다.

둘째, 발·다리구속형 주얼리는 페티시 패션아이템으로 활용되어 왔던 하이힐과 긴 부츠, 가터벨트를 연상시키거나 그것들과 통합된 디자인이 특징적이다. 무릎 밑과 허벅지를 조이는 체인형 발찌와 끈으로 연결된 장식적 주얼리는 억압적 페티시와 함께 신화적인 분위기를 연출하였다. 하이힐을 상징하는 높은 굽을 금속으로 제작한 주얼리는 성적 지배자로서의 도상이 표현되는 마조히즘적인 섹슈얼리티와 미래의 에로틱한 신체 이미지를 엿볼 수 있었다.

셋째, 손·팔구속형 주얼리는 손가락의 움직임과 기능을 제한하는 실험적인 디자인으로 억압적 페티시와 유희성을 동시에 드러냈고 금속, 플라스틱과 같이 광택이 나는 매끄러운 소재로 제작되어 미래형 주얼리 디자인을 선보였다. 형태적 페티시 대상물로서 남근을 상징하는 빨과 금으로 만든 주얼리는 샤머니즘과 신화적인 분위기를 형성하였다. 또한 구속의 의미를 지닌 장갑과 페티시 소재인 가죽을 조합한 링 주얼리는 숭고한 이미지의 화이트 컬러와 진주알이 더해져서 에로틱하면서도 로맨틱한 이미지를 연출하였다. 날카로운 가시장식이 특징인 팔구속형 주얼리는 공격적인 기능을 연상시키며, 공포스러운 느낌과 함께 성적지배자로서의 도상을 나타냈다.

넷째, 기타 신체구속형 주얼리는 유두와 목 부위를 구속하는 디자인 등이 있었다. 광택이 나는 소재를 유두 주변부위에 부착하는 방식의 주얼리 디자인은 유두의 둥근 형태적 특징을 강조하고, 피어싱 장식을 더하여 미래의 섹슈얼한 신체이미지를 보여주었다. 목을 구속하는 페티시 주얼리는 마조히즘적인 성적 퍼포먼스를 연상시키면서 지배와 복종의 의미를 강하게 표출하였다. 또한 자물



쇠와 잠금장치를 활용한 주얼리는 억압적 이미지와 유머러스한 코드를 동시에 반영하였다.

신체구속의 유형별로 살펴본 결과 페티시 주얼리 디자인은 관능성, 환상성, 공포성, 미래성, 유희성의 미적 특성이 나타났다. 첫째, 관능성은 모든 유형의 페티시 주얼리의 공통된 특징으로 페티시 패션과 결합되어 성적 판타지를 유발하였다. 또한 성적행위나 성감대를 가리키는 구강, 유두부위의 주얼리를 통해 주얼리의 새로운 착용부위와 방식을 선보였다. 둘째, 환상성은 물성송배로서의 페티시즘을 보여주는 주얼리 디자인으로 모티브의 주술적 의미와 상징성이 돋보였다. 셋째, 공포성은 구속과 억압적 이미지를 강조하고, 시각적으로 압박과 고통, 고통을 연상시켰다. 또한 성적지배자로서의 도상과 마조히즘을 표현한 주얼리 디자인으로 나타났다. 넷째, 미래성은 사이보그틱한 신체 이미지를 표현하거나 금속, 플라스틱 소재로 제작된 실험적인 주얼리 디자인으로 표현되었다. 마지막으로 유희성은 키치적인 요소나 놀이 개념을 적용하여, 흥미와 웃음을 유발할 수 있었다.

이상과 같이 페티시즘을 반영한 신체구속형 주얼리는 신체특징 부위에 착용되어 왔던 주얼리의 관습적 범주를 확장시키며, 심리적으로도 성적 이미지를 환기시키는 새로운 매개체로서 작용하였다. 또한 장식의 용도로 활용되는 주얼리에 페티시즘 문화와 다양한 상징적 모티브와의 결합을 보여줌으로써 그 의미 또한 확장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관능적인 면뿐만 아니라 환상성, 공포성, 미래성, 유희성과 같은 다양한 미적 특성들은 창의적 디자인과 개성을 선호하는 현대 소비자들의 다양한 미적욕구와 호기심을 충족시키기에 충분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결과는 그동안 상대적으로 연구가 부족했던 주얼리 디자인을 위한 교육 자료로서 활용되고, 주얼리 디자이너들에게 페티시즘을 토대로 한 디자인의 발상과 표현 방법, 재료의 확장에 관한 아이디어를 제

공해 줄 수 있는 유용한 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 References

- artnau. (2015, February 4). *Fingertips* by Natha Khunprasert. *ARTNAU*. Retrieved March 17, 2017, from <http://www.artnau.com/2015/02/fingertips-natha-khunprasert>
- Bang, W. I. (2011). Fetishism: The history of idea and its meaning in Korea. *Religion and Culture*, 21(-), 103-119.
- Betony Vernon. (n.d.). *virtualshoemuseum*. Retrieved May 25, 2017, from <http://www.virtualshoemuseum.com/betony-vernon>
- betony vernon jewelry. (n.d.). *Pinterest*. Retrieved May 29, 2017, from <https://www.pinterest.co.kr/pin/91479436158585044>
- body armor. (2010, January 10). *imunlisted*. Retrieved June 25, 2017, from <https://imunlisted.wordpress.com/tag/armor>
- Catwoman. (n.d.). *NAVER*. Retrieved March 17, 2017, from <http://movie.naver.com/movie/bi/mi/photoView.nhn?code=38451>
- Choi, J. H. (2011). An analysis of posthuman's body type and fashion in SF movies. *The Research Journal of the Costume Culture*, 19(3), 473-487.
- Choi, J. H. (2015). An analysis of character image types and meanings expressed in fashion masks. *Journal of Basic Design & Art*, 16(3), 571-582.
- Cooper, J. C. (1994). *그림으로 보는 세계문화상징사전* [An illustrated encyclopaedia of traditional symbols] (Lee, Y. G., Trans.). Seoul: Kachii Publishing Co., Ltd. (Original work published 1978)
- Dark Beauty. (2014, May 12). Alberto Lanz(LANZ Photography)-Lorcan Hasse. *DARK BEAUTY*. Retrieved April 8, 2017, from <http://www.darkbeautymag.com/2014/05/alberto-lanz-lanz-photography-lorcan-hasse>
- Edelkoort, L. (2013). *Fetishism in fashion*. Amsterdam: Frame.
- ELLE.COM. (2012, October 2). Paco Rabanne Spring 2013 Ready-to-Wear Detail. *ELLE*. Retrieved June 29, 2017, from <http://www.elle.com/runway/spring-2013-rtw/g16737/paco-rabanne-spring-2013-rtw-detail/?slide=2>
- Fetishism. (n.d.). *WIKIPEDIA*. Retrieved July 25, 2017, from <https://en.wikipedia.org/wiki/Fetishism>
- Fetishismus. (n.d.). *NAVER*. Retrieved July 25, 2017, from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691294&cid=41908&categoryId=41930htt>
- Gold/white/translucence...I love this aesthetic. Sampedro accessories by Rocio Cuenca/editorial/#MIZUstyle. (n.d.). *Pinterest*. Retrieved April 12, 2017, from <https://www.pinterest.co.kr/pin/370984088041613377>
- Helps, W. (2010, May 3). Naomi Filmer; Edible Expressions,

- Ice Jewellery and Body Sculpture. *WENDY HELPS; MA VISUAL ARTS DESIGNER MAKER*. Retrieved May 4, 2017, from <http://wendyhelpsmadesignermaker.blogspot.kr/2010/05/naomi-filmer-edible-expressions-ice.html>
- Hintsanem, E. (2004). *ERO HINTSANEM*. Retrieved May 4, 2017, from <https://www.eerohintsanem.com/2015/4/7/spine-925-ooo-silver>
- Hood by Air SS16. (n.d.). *DAZED*. Retrieved March 15, 2017, from <http://www.dazeddigital.com/fashion/gallery/20049/1/hood-by-air-ss16>
- Hu Sheguang Haute Couture 2014. (n.d.). *Pinterest*. Retrieved May 25, 2017, from <https://www.pinterest.co.kr/pin/367254544585864638>
- Hwang, Y. J., & Choi, J. H. (2015). A study on the blurring of boundary reflected in contemporary fashion jewelry design: Focused on the relationship between fashion jewelry and costume or fashion jewelry and body. *Fashion & Textile Research Journal*, 17(1), 11-21. doi:10.5805/SFTI.2015.17.1.11
- Jasc. (2014, January 31). Christian Dior Haute Couture Spring 2014 Shoes: Chain Mail, Leg Jewelry, and Shower Shoes. *The Terrier and Lobster*. Retrieved April 12, 2017, from <http://dustyburrito.blogspot.kr/2014/01/christian-dior-haute-couture-spring.html>
- Joanne, E. (2013). *패션화된 몸* [Fashioned body] (Choi, K. H., Trans.). Seoul: Hansung University Press. (Original work published 2000)
- Jung, K. S. (2013). The aesthetic values of desire embodied in modern fashion.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Fashion Design*, 13(4), 41-59.
- Kim, J. J. (2012). A theoretical research on the new value of contemporary jewelry in digital age: Focused on design methods acts to bridge HCI, fashion and communication. *Journal of Korea Design Forum*, 36(-), 389-398.
- Kim, M. J. (2010). *A study of women's fetish shoes desig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Sookmyung Women's University, Seoul.
- Lee, J. Y., & Kang, B. S. (2015). Features of fetish shoes design observed in contemporary fashion: Focused on surrealistic expression technique. *Journal of Basic Design & Art*, 16(3), 451-463.
- Lee, K. S. (2016). A study on costume jewelry: Focused on its definition and function. *Journal of Basic Design & Art*, 17(2), 299-308.
- Lee, Y. J., & Yang, S. H. (1998). *페티시즘* [Fetishism]. Seoul: Kyungchunsa.
- love-squad. (n.d.). Mad Max: Fury road: Furiosa. *DEVIANT ART*. Retrieved July 2, 2017, from <https://shproton.deviantart.com/art/Mad-Max-Fury-road-Furiosa-563039696>
- Lnning, F. (2013). *Fetish style*. London: Bloomsbury Academic.
- Lynch, E. (2013, January 29). Wearable Sculptures that Make the Wearer Perform a Gesture. *LAUGHING SQUID*. Retrieved July 2, 2017, from <https://laughingsquid.com/wearable-sculptures-that-make-the-wearer-perform-a-gesture>
- Michault, J. (2014, September 7). HOOD BY AIR READY TO WEAR SPRING SUMMER 2015 NEW YORK. *NOWFASHION*. Retrieved December 15, 2017, from <https://nowfashion.com/hood-by-air-ready-to-wear-spring-summer-2015-new-york-9966>
- Peterson, A. (2015, March 25). *GLA*. Retrieved March 19, 2017, from <http://geekleagueofamerica.com/2015/03/25/movie-review-ex-machina>
- Sin, J. H., & Lee, H. G. (2015). A research on changes in modern fashion jewelry design.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Design Culture*, 21(4), 325-337.
- Song, W. J. (2015). *Study on art educational value of fetishistic kitsch*. Unpublished master's thesis, Dankook University, Yongin.
- Stohler, P., & Pantellini, C. (2004). *Body extensions: Photography, film, comic, fashion*. Stuttgart: Arnoldsche Verlagsanstalt GmbH.
- Veron. (2013, May 10). Alexander McQueen Fall 2013 (RTW)-Accessories & Video. *VeronicaLau blogspot*. Retrieved May 10, 2017, from <http://veronicalau.blogspot.kr/2013/05/alexander-mcqueen-fall-2013-rtw.html>
- whore-for-couture: empirewaistlines: Francesco Scognamiglio HC2014 Haute Couture blog. (n.d.). *Pinterest*. Retrieved April 17, 2017, from <https://www.pinterest.co.kr/pin/389631805233308144>
- Yim, E. H. (2014). Externalization of corset in contemporary fashion. *The Research Journal of the Costume Culture*, 22(1), 1-15. doi:10.7741/rjcc.2014.22.1.001
- Работы Katarzyna Konieczka [Works of Katarzyna Konieczka]. (2011, April 27). *LIVEJOURNAL*. Retrieved May 17, 2017, from <http://fashion-shower.livejournal.com/251219.html>

# **A Study on Typical Analysis and Aesthetic Characteristics of Jewellery with Body Restraint Reflecting Fetishism**

**- Focused on Cases since 2000 -**

**Yoo, Yeon Jae • Choi, Jung Hwa<sup>+</sup>**

Lecturer, Dept. of Clothing and Textiles,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Professor, Dept. of Clothing and Textiles,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sup>+</sup>

##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on jewellery with body restraint reflecting fetishism.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ype and aesthetic characteristic of fetish jewellery for new jewellery design like Jennifer Crupi, Naomi Filmer, Vetony Vernon. This study referred to recent documents on fetishism and internet fashion websites. It also reviewed 100 jewellery photos in major 4 fashion collections and professional jewellery designers' websites from 2000 to recent date.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jewellery with face·mouth restraint recalls sexual performance by concealing the face and mouth, with chain and machine. Fantastic mask jewellery makes superpower and new persona. Plastic mouthpieces jewellery design represents the humorous aspect as well. Second, the jewellery with foot·leg restraint expresses a fantastic image and a sexual dominatrix image. It also creates a mythical mood. Third, the jewellery with hand·arm restraint shows experimental futuristic design by controlling the finger's movement and function. It was made of plastic and metal devices. The ring made of gold and horn reflects shamanism. The ring jewellery made by leather, gloves expresses the romantic sexuality. The armor style design, which is used to control the arm shows violence. Other jewels with body restraint represent the form of pressured nipple and neck. The shackled-form of bracelet and necklace suggests performance of masochism and a humorous mood. The fetish of jewellery with physical restraint has five aesthetic characteristics; sexuality, fear, fantasy, futurity, and humor. This study is expected to be used for the development of creative jewellery design and instructional materials.

Key words : fetishism, jewellery, restriction of body, sexual fantasy

